

唐 後期, 金銀과 東亞細亞交易*

李侑珍**

< 목 차 >

1. 머리말
2. 新羅의 金銀과 唐·日本
3. 日本 金銀의 東亞細亞流入
4. 金銀과 東亞細亞交易의 變化
5. 맺음말

1. 머리말

唐 後期の 東亞細亞는 對外交流라는 측면에서 이전시기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9세기 중반이후 10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東亞細亞 國際交易은 교역형태에 있어서 기존의 朝貢과 回賜라는 형식을 통한 公貿易에서 商人들의 海上活動을 통한 私貿易의 형태로 전환되어 갔고¹⁾, 唐代 중반까지 張保臯

* 본 논문은 2007년도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장보고연구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숭실대학교 사학과 강사.

1) 김문경·김성훈·김정호편, 『장보고해양경영사연구』, 이진, 1993; 손보기 엮음, 『장보고와 청해진』, 혜안, 1996; 손보기·김문경·김성호엮음, 『장보고와 21세기』, 혜안, 1999; 김문경, 「장보고시대의 해상활동과 교역」, 『한중문화교류와 남북항로』, 국학자료원, 1997; 이병로, 「九世紀 초기의 環지나海무역권의 고찰-장보고와 대일교역을 중심으로」, 『일본학지』 15, 1995; 李成市,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青木書店, 1997; 松原弘宣, 「陳泰信の書狀と唐物交易使の成立」, 『續日本紀研究』 317,

를 중심으로 하는 新羅人과 在唐新羅人들이 주도하던 東亞細亞의 海上交易은 張保臯의 死後 점차 중국 상인의 주도로 변모해 갔다²⁾.

이러한 변화는 이어지는 東亞細亞의 정세와 각국의 외교적 긴장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安史의 亂 이후 왕조의 쇠퇴기로 접어든 唐은 여전히 東亞細亞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왕조 내부의 혼란 극복에 주력하다보니 주변국과는 종래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머물렀을 뿐이고, 新羅와 日本도 9세기 후반에 이르러 특히 일본의 신라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³⁾ 兩國의 民間交流마저도 점차 소원해져 갔다⁴⁾.

또한 寬平 6년(894) 9월 공식적으로 遣唐使과견을 정지한 일본은 신라와의 관계악화뿐만 아니라 이후 당과도 어떠한 공식적 외교관계도 맺지 않은 채 이후 항해해 오는 중국 상인들과의 교역만을 행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세기 초 결국, 東亞細亞의 구심체였던 당이 멸망하고(907), 이어 신라도 멸망하였으며(936), 일본은 왕조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律令制를 기반으로 한 天皇支配體制가 무너지고 貴族政治로 변모해 갔다.

本考에서는 이렇게 국내외적 격변기에 해당하는 9~10세기의 東亞細亞가 어떻게 대외교역관계를 유지·변화시켜갔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일환

1998; 同 「九世紀代における對外交流とその流通」, 『愛媛大學法政學部論集』 人文科學編 6, 1999; 同 「鴻臚館交易について」, 『愛媛大學法政學部論集』 人文科學編 10, 2001; 山崎雅稔, 「9世紀日本の對外交流」, 『アジア遊學』 26, 2001; 渡辺誠,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2003 등 참조.

2)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해 장보고사후 東亞細亞해상교역에 중사하는 중국 상인의 대다수는 재당신라인이나 그들의 후예로 밝혀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권덕영, 『재당신라인사학연구』, 일조각, 2005 등 참조.

3) 이병로,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일본학지』 16, 1996; 生田滋, 「新羅の海賊」, 『海と列島文化-日本海と出雲世界』 2, 1991; 酒寄雅志, 「九・十世紀の日本の國際關係」, 『アジア遊學』 26, 2001 등 참조.

4) 山内晉次, 「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の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歴史科學』 122, 1990; 同 「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寇賊・反亂をおもな素材として-」, 『歴史評論』 555, 1996 등 참조.

으로 직접적인 物品의 이동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써 주목한 것이 金銀이다.

金銀은 東亞細亞에 있어서 朝貢과 回賜를 통해 전달되는 國際交易品뿐만 아니라, 교역대가로서의 지불수단이기도 하였다. 金銀交易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⁵⁾, 근래에도 꾸준히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거의 일본과 중국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일본사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東亞細亞에서 金銀⁷⁾交易의 실체를 재검토하고 그 移動을 중심으로 9~10세기 東亞細亞교역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新羅의 金銀과 唐·日本

3~4세기 무렵부터 倭에 의해 金銀의 나라로 일컬어졌던⁸⁾ 新羅는 일찍부터

- 5) 加藤繁, 『唐宋時代に於ける金銀の研究』, 東洋文庫, 1926; 小葉田淳, 『金銀貿易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三克己, 『日宋貿易と奥州の砂金』, 『續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등 참조.
- 6) 保立道久, 『黃金國家-東アジアと平安日本-』, 青木書店, 2004; 五味文彦, 『日宋貿易の社會構造』, 『今井林太郎先生喜壽記念國史學論叢』, 1988; 田島公, 『大宰府鴻臚館の終焉-八世紀~十一世紀の對外交易システムの解明』, 『日本史研究』 389, 1995; 田中史生, 『「歸化」と「渡來」と「商賈之輩」-律令國家における國際交易の變遷過程-』,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997; 同 『筑前國の銀の流通と國際交易-銀流通の前提を再考する-』, 『古代の銀と銀錢をめぐる史的檢討』, 2004; 皆川雅樹, 『9~10世紀における日本の金と對外關係-大宰府鴻臚館を中心として-』, 『古代交通研究』 11, 2002; 渡辺誠, 『平安期の貿易決濟をめぐる陸奥と大宰府』, 『九州史學』 140, 2005 등 참조.
- 7) 金에 대해서는 史料 상에는 '金' '黃金' '麩金' '砂金' '沙金'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그 종류별로 세분하지 않고 모두 金으로 파악한다.
- 8) 『日本書紀』 神代上(寶劍出現) 一書第五: 仲哀天皇 8년 9월 己卯條; 神功皇后攝 政前紀 10월 辛丑條, 12월 辛亥條; 顯宗元年 正月 己巳條; 繼體 6년 2월 辛卯條 등.

唐·日本 등 東亞細亞 주변국과의 交역에 金·銀을 이용하였다.

먼저 新羅의 金銀이 唐으로 유입된 事例를 검토해 보자. 唐과 冊封體制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신라는 冊封國으로써 기본적으로 朝貢과 回賜를 통해 중국과 交역하였다. 양국 사이에 교류된 物品名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三國史記』나 『冊府元龜』 『唐會要』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新羅와 唐 사이의 朝貢과 回賜의 기록에서 몇 가지 物品名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당에 보낸 조공품으로는 신라특산품(牛黃, 人蔘, 美鬣 등), 견직물이나 布 등의 섬유류와 金銀銅 등의 금속공예품, 그리고 원료로서의 金·黃金·麩金·銀 등을 매 시대마다 당에 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은 외교적인 儀禮品이나 견 등 고급직물류, 금속가공제품, 典籍이나 불교용품 등의 문화관련 物品을 회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신라는 일찍부터 金銀을 채굴했고, 이를 제련·가공하는 기술 또한 뛰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銀공예품이야 당연히 신라가 당에 보낸 貢獻品이었겠지만, 원료적 형태의 金銀은 조공품이었는지 아니면 조공과 회사 이외에 당으로부터의 物品 구입 등에 사용한 지불의 수단 등 이외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史料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에 金은 희소금속으로서 당에서 유통되고 있던 銅錢 이상의 財寶的 가치를 가진 것이었고⁹⁾, 銀 역시 당 내부에서 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통되고 있었을¹⁰⁾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서 東亞細亞 국가 간에 널

- 9) 당에서 金이나 布가 화폐와 함께 유통되며 銅錢 이상의 財寶的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특히 兩稅法이 성립(780)된 이후 조세가 錢納化되면서 일어난 동전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화폐와 함께 통용되던 金이나 布 등 현물화폐가 지니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栗原益男·布目潮風, 『中國の歴史』, 講談社, 1975). 이러한 상황은 당이 開元 2년(714) 閏3월(『唐會要』 권86 市)과 建中 元年(780) 10월(『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에 내린 禁令과 關市令(『唐律疏議』 권8 衛禁律 '齎禁物私度關') 등에 金銀銅鐵 등이 交역금지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0) 당의 남부지역에서 유통된 庸調銀의 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栗原益男·布目潮風, 『中

리 사용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조공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종의 교역상품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서도 이용되었을 것이다¹¹⁾.

물론 金銀이 언제부터 교역상품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과 주변국과의 국제교역인 互市에서도 布나 米 등이 주요 교환수단으로 병용되고 있었으므로 당시 당의 경제구조가 金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 중기에 이르면 이미 당 내부에서 金銀이 다량으로 산출되어¹²⁾ 이것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¹³⁾ 金銀이 교역대가로 지불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신라는 조공뿐만 아니라 당에 宿衛學生을 보낼 때 국가가 買書銀이나 買書金을 주어 학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⁴⁾, 또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高麗史』 권1 定宗世家 3년(948) 9월조에 보면 女眞으로부터 구입한 말의 대가로 錦絹과 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생각해 볼 때 신라와 당 사이에 金銀은 唐 중기 이후 점차 조공품 이외에 가치교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新羅에서 唐으로 金銀의 流入

연도	출전
1 665 金	三國史記
2 672 銀	三國史記

國の歴史』, 講談社, 1975); 日野開三郎, 「唐代嶺南における金銀の流通」,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5, 1984.

11)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9, 1984, p.81.

12) 『元和郡縣志』와 『新唐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의 金 산지는 모두 60여 州, 銀의 산지는 모두 70여 州에 이른다(加藤繁, 앞의 책, pp.496~509).

13) 日野開三郎, 「唐代嶺南における金銀の流通」,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5, 1984.

14) 박남수, 「8-9세기 한·중·일 교역과 장보고의 경제적 기반」, 『대의문물교류연구』 4, 2006, p.135; 『東史綱目』 제5상 己丑 景文王九年(869) 秋七月 ... 又遣學生李同等三人 隨胤往請習業賜買書銀三百兩 ...

3	723	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冊府元龜
4	724	金, 銀	唐會要
5	730	金	三國史記
6	733	金, 銀	三國史記, 冊府元龜
7	748	金, 銀	唐會要
8	773	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冊府元龜, 唐會要
9	810	金, 銀	東史綱目
10	869	麩金, 銀	三國史記, 東史綱目
11	929	金, 銀	五代會要

신라와 일본 사이에도 일찍부터 金銀이 유통되었다. 양국 간의 교역이 시작된 이래 8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신라의 金銀이 일본으로 전해진 것에 비해, 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금이 신라로 전해지고 있다. 804년 日本使는 신라에 黃金 300냥을 진상하였고¹⁵⁾, 이후 882년에도 日本使가 신라에 금을 바친 기록이 있다¹⁶⁾.

일본에서 金이 산출되는 것은 天平 21년(749) 陸奥에서 金이 산출되면서부터이다. 陸奥에서 金이 산출되기 이전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金을 구하고 있다. 7세기 高句麗나 新羅가 일본에 보낸 물품에 金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수요에 응해 고구려나 신라가 준비한 물품일 것이다¹⁷⁾.

8세기에 이르러서도 일본은 신라로부터 금을 수입하고 있다. 天平勝寶 4년(752) 일본에 金泰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新羅使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교역을 주목적으로 한 것 이었다¹⁸⁾. 이들은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

15)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제10 哀蔣王 5년 5월 夏五月 日本國遣使 進黃金三百兩.

16) 『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 제11 憲康王 8년 4월 夏四月 日本國王遣使 進黃金三百兩·明珠一十箇.

17) 『日本書紀』 推古 13년 4월 辛酉條; 皇極 元年 2월 丁未條; 天武 8년 10월 甲子條; 天武 10년 9월 乙酉條; 朱鳥 元年 4월 戊子條; 持統 2년 2월 辛卯條 등.

18) 濱田耕策, 「新羅中代・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石

했고 일본의 귀족층은 앞 다투어 교역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때의 물품주문서에 해당하는 '買新羅物海' 30여 점¹⁹⁾이 正倉院寶物의 下貼文書로 남아 당시의 교역품명이나 지불수단 등 교역의 실태를 전해주고 있다. 이때에는 각종 香料·藥物·顏料·染料·器物 등 다양한 물품이 교류되었는데 특히 4통의 '買新羅物海'에서²⁰⁾ 일본 귀족들은 金(黃金)의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752년은 陸奥에서 금이 산출되고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金銀 신라와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물품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당시에 東大寺大佛을 조영하며 그 도금을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신라로부터 대량의 금을 수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때에 일본이 신라뿐 아니라 당으로부터도 금을 수입하기 위해 건당사의 파견을 계획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¹⁾.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8세기 후반에도 金과 銀을 매개로 한 교류가 행해지고 있었다. 『三國遺事』 권2 元聖大王 貞觀 2년(786) 丙寅 10월 11일조에 의하면, 日本王 文慶이 金 500냥을 보내 신라의 神物인 萬波息笛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은 다음 해에 다시 사절을 통해 金 1,000냥을 보내 만파식적을 청했으나 元聖王은 그 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銀 3,000냥을 일본사절에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延喜式』 大藏式賜蕃客條에는 唐의 皇帝에 대한 여러 賜物品이 기록되

어 있다²²⁾. 여기에는 '銀大五百兩'이라 기록되어 있고, 金의 사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入諸蕃使條를 포함해 보아도 외교사절이나 蕃客에게 지급·사여하는 물품에 金銀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延喜式』의 규정은 8세기 일본 내의 상황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8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金을 수입하는 입장이었고, 일본이 대외교역에 사용한 것은 銀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 황제에게 銀을 사여한다고 하는 『延喜式』의 규정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당의 황제가 '蕃客'으로서 일본에 왔을 경우에 銀을 사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당에 보낸 조공품의 내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며, 기록을 통해 보는 한 8세기 단계에서 일본에서 金銀의 사용은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東大寺의 末寺였던 觀世音寺의 天平寶字 2년(758) '奴婢例文'²³⁾에 나타난 노비의 노동력을 銀으로 환산하는 내용의 문서와 無文銀錢 등의 화폐적 유통의 검토를 통해 筑前國을 중심으로 적어도 8세기 이후 일본의 西海道에서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신라인과 銀을 매개로 가치기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²⁴⁾ 즉 신라와 일본 간에는 新羅使와 같은 국가적 관리를 수반하는 교역이외에도 신라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筑前國 등의 지역에서는 양국 간에 독자적으로 이미 銀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觀世音寺는 830년대 僧侶 惠雲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에게 銅鏡 등의 佛具를 가지고 온 '新羅商客'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고²⁵⁾, 또 觀世音寺의 우물에서는 신라상인들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것이 통설이 된 8세기 후반의 월주요계청자가 출토되는 등²⁶⁾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과 관련하여 주목

井正敏, 「8・9世紀の日羅關係」,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7; 김창석, 「8세기 신라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752년 교역의 성격검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84, 2004 등 참조. 그러나 이 752년의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에 대해 신라 측의 국제교역이 주목적이 아니라, 당시 신라와 일본 양국이 가진 정치적 의도가 더 중시된 사절의 파견이라는 견해도 있다(李成市, 앞의 책).

19)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77;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2, 1994 등 참조.

20) 『大日本古文書』 25권 44항, 48항, 皆川完一 논문 1호문서, 東野治之 논문 12호문서.

21) 『扶桑略記抄』 권2 天平21년 정월 4일.

22) 『延喜式』 卷30 大藏省 大唐皇 銀大五百兩 水織純 美濃純各二百疋 細純 黃純各三百疋 黃絲 五百絢 細屯綿一千屯 …

23) 『古文書集一』, 早稻田大學藏資料影印叢書, 1985; 龜田隆之, 「觀世音寺の奴婢」, 『日本古代制度史論』 제2편, 吉川弘文館, 1980 등 참조.

24) 田中史生, 앞의 논문, 1997, pp. 219~236; 同 2004 등 참조.

25) 『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 『平安遺文』 1-164 庫頭 … 餘昔被拜大宰府講師 兼筑前國講師之日 新羅商客頻往來貨賣銅鏡疊子等 …

26) 九州歷史資料館, 「大宰府史跡」, 『昭和51年度發掘調査概報』, 1977.

할 만한 내용이다.

다음은 신라 내에서 金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9세기 초반에 신라에서 金銀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권33 잡지에 의하면 834년 신라는 眞骨貴族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의복뿐만 아니라 車騎·器用·屋舍까지도 계층마다 그 장식이나 金銀소재 등의 사용규제를 법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禁畵의 배경에는 이미 신라에 金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욱이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 哀蔣王 7년(806)에는 佛寺와 불교행사에 관한 禁畵를 반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金銀을 사용했던 器用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²⁷⁾. 물론 이것은 寺院統制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미 9세기 초반 신라에서는 金銀을 사용한 기물의 제작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 중심의 하나가 寺院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라에서 金銀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던 9세기 단계에서, 日本使가 신라에 黃金을 진상하고 있는 것은 양국 간에 金銀의 유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三國史記』에 의하면 803년 4월, 804년 5월, 806년 3월, 808년 2월에 일본으로부터 사절이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803년의 기록이외에는 일본 측에는 이와 관련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는 아마도 大宰府의 府官이나 大宰府管内의 國司 등이 '日本使'를 칭하여 私貿易을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²⁸⁾. 이러한 상황 하에서 804년 일본이 신라에 보낸 금이 단순한 교역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고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신라로부터 금을 구매하던 일본이 9세기 단계에는 신라로 금을 유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²⁹⁾.

표2. 日本 金銀의 新羅 流入

	연도		출전
1	786	金	三國遺事
2	787	金	三國遺事
3	804	黃金	三國史記
4	882	黃金	三國史記, 東史綱目

표3. 新羅 金銀의 日本 流出

	연도		출전
1	682	金, 銀	日本書紀
2	689	金, 銀	日本書紀
3	752	(黃)金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
4	787	銀	三國遺事

3. 日本 金銀의 東亞細亞流入

일본 金銀이 어떻게 당과 신라로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金銀이 언제부터 산출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698년 對馬島로 하여금 金을 정련하게 하였³⁰⁾, 701년에

27) 『三國史記』 新羅本記 哀蔣王 7년(806) 下教禁新創佛寺 唯許修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28) 石井正敏, 앞의 논문.

29) 일본의 금이 해외로 유출된 사례는 8세기 후반에 확인된다. 『續日本紀』 寶龜 7년(776) 4월 壬申條에 보면 御前殿賜遣唐使節刀 詔曰… 事畢 賜大使副使御服 賜前入唐大使藤原河清 書曰 汝奉使絕域 久經年序 忠誠遠著 消息有聞 故今因聘使 使命迎之 仍賜絕一百匹 細布一百端 砂金大一百兩 宜能努力 共使歸朝 相見非賒 指不多及이라 하여 금이 단순한 교역품으로서가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30) 『續日本紀』 권1 文武天皇 2년 12월 辛卯條 令對馬鳴冶金鑛.

는 비로소 黃金이 생산되고 있다³¹⁾. 그러나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金이 산출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天平 21년(749) 陸奥에서 金이 산출되면서부터이다. 743년 東大寺大佛의 조영을 계획한 일본은 747년에 드디어 대불의 조영에 착수했다³²⁾. 그러나 대불의 鍍金에 필요한 金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므로 일본 조정은 各國에 金鑛의 탐색 및 개발을 명했다. 그 결과 749년에 陸奥國司가 部内の 小田郡에서 채취한 金 900兩을 헌상하면서³³⁾ 일본에서 金의 생산이 본격화 된 것이다.

또한 876년에는 唐人들이 肥前國 松浦郡의 섬에서 銀 등을 채취했다고 하는 기록도 보인다³⁴⁾. 이 사료를 통해 우리는 일본에서 8세기부터 시작된 金銀 채굴은 9세기 단계가 되면 채굴 지역이 널리 확산되고 그 주변국과의 교류 역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일본의 金銀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당에 贈物로 보내졌고, 또 遣唐使의 파견에 여비 등으로도 충당되었다. 초기에 건당사는 일본에서 주조했던 '和同開珎'³⁵⁾ 등의 銀錢 휴대하고 당으로 갔지만 그것이 唐에서 통용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비 등에 이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金이 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건당사들은 金塊·銀塊나 砂金의 형태로 주로 金銀을 휴대

31) 『續日本紀』 권1 大寶元年 3월 甲午條 對馬嶋貢金: 8월 丁未條 先是 遣大倭國忍海郡人三田首五瀨於對馬嶋 治成黃金.

32) 『東大寺要錄』 권1 本願章 延曆僧錄: 권2 緣起章 大佛殿碑文: 前田泰次 외, 『東大寺大佛の研究』, 岩波書店, 1997 등 참조.

33) 『續日本紀』 권3 天平勝寶元年 2월 조 天平二十一年二月丁巳 陸奥國 始貢黃金 於是奉幣 以告畿內七道諸社: 4월 甲午朔條 ... 此大倭國者 天地開闢以來 黃金人國獻言有 斯地者無物念聞 看食國中東方陸奥國守從五位上百濟王敬福 部內少田郡黃金在奏憲 ..., 乙卯條 陸奥守從三位百濟王敬福貢黃金九百兩.

34) 『三代實錄』 권28 清和天皇 貞觀 18년 3월 丁亥條 ... 唐人等必先到仲嶋 多採香藥以加貨物 不令此間 人民觀其物 又其海濱多奇石 或鍛鍊得銀 或琢磨似玉 ...

35) 和同錢은 銀錢, 銅錢의 두 종류로 和同 元年(708)에 발행되었다. 1970년 10월 초 中國 西安 南郊에 있는 何家村의 건축현장에서 두 개의 벽돌(甍)과 은제 항아리(銀罐) 하나가 서로 이어진 채 발견되었다. 그 속에서 각종 財寶 및 金銀器 등과 함께 이 일본 最古의 銀錢인 和同開珎이 발견되었다. 이는 아마 건당사로 파견되었던 누군가가 당으로 가지고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고 당으로 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續日本紀』 寶龜 7년(776) 4월 壬申條에 의하면, 일본 조정은 제11차 遣唐使로 天平勝寶 4년(752)에 파견된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당에 머물고 있는 前入唐大使 藤原清河에게 寶龜 8년(777)에 파견될 제 14차 건당사를 통해 砂金 大100兩을 하사했다³⁶⁾. 또 건당사가 출발할 때 宮中에서 賜錢을 행하고 그 때 綵帛, 賁布 등과 함께 砂金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제16차 건당사가 출발할 때 大使 藤原葛野麻呂에게는 金 200兩, 副使 石川道益에게는 金 150兩이 하사되었다.³⁷⁾ 대개 대사에게는 金 200냥, 부사에게는 金 100냥에서 150냥을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후 9세기에 이르면 入唐留學僧(留學生)과 관련하여 그들의 학비나 여비 등을 金으로 충당한 예가 많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가 당에 숙위학생을 파견할 때 買書金이나 買書銀을 주어 경비 등에 충당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延曆 15년(796) 渤海使를 통해 太政官의 書와 沙金 少300兩이 在唐學問僧 永忠 등에게 하사된 것을 시작으로³⁸⁾, 延曆 23년(804)에는 入唐求法僧 사이조(最澄)가 台州刺史 陸淳을 만나 金 15兩, 筑紫輩紙 200張 등을 선물하였다³⁹⁾. 이는 아마 사이조가 유학경비로 일본에서 가져 온 것이었을 것이다. 또한 弘仁 9년(822)에는 嵯峨天皇이 渤海使를 통해 入唐留學生 靈仙에게 黃金을 하사하였고⁴⁰⁾, 天長 3년(826)에도 발해사를 통해 淳和天皇이 五臺山에 머물고 있는 靈仙에게 黃金 100兩을 하사하였다⁴¹⁾.

36) 주 29) 참조.

37) 『日本後紀』 권11 延曆 22년 3월 庚辰條 ... 賜葛野麻呂御被三領·御衣一襲·金二百兩, 道益御衣一襲·金一百五十兩; 『續日本後紀』 承和 3년 4월 壬申條.

38) 『日本紀略』 延曆 15년 5월 丁未條 ... 仍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國王云云 特寄絹二十疋 純二十疋 絲百約 綿二百屯 以宛云云 今因定琳等還 沙金小三百兩以宛永忠等.

39) 『顯戒論緣起』 延曆 23년 9월 26일 조.

40)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 7월 3일 조.

41)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 7월 3일 조; 『續日本後紀』 承和 9년 3월 6일 조.

제 17차 견당사와 함께 당에 들어가 유학한 엔자이(圓載)와 엔닌(圓仁)에 게도 그 여비와 유학경비로 金이 전달되었다. 承和 6년(839)에는 遣唐大使가 留學僧 엔자이에게 學問料로 沙金 25大兩을 주었다⁴²⁾. 承和 8년(841)에는 在唐新羅商人인 陶十二郎을 통해 엔닌에게 砂金 24小兩이 전해졌고⁴³⁾, 承和 11년(844)에 일본 조정은 엔자이의 제자 仁好편에 엔닌과 엔자이에게 旅資로서 黃金 200小兩을 보내주었다⁴⁴⁾. 承和 13년(846)에는 엔닌의 제자 性海 등 ‘엔닌수색대’가 黃金을 가져왔고⁴⁵⁾, 嘉祥 元年(848)에도 엔자이에게 黃金 100小兩이 전해졌다⁴⁶⁾.

그리고 元慶 초(877?)에는 엔친(圓珍)에게 叡山으로부터 黃金 100兩과 讚岐權守 高向公輔가 보내는 黃金 10兩이 전달되었다⁴⁷⁾. 元慶 6년(882)에는 엔친이 砂金 50兩으로 佛經을 구하였고⁴⁸⁾, 寬平 2년(890)에도 圓珍은 이전(元慶 6년 7월 15일)에 揚州의 사람이 보내준 寫經 50권에 대한 답례로 沙金을 보냈다⁴⁹⁾. 이렇게 엔친은 唐에서의 유학 경비로 金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寬平 6년(894) 太政官은 在唐僧 中瓘에게 砂金 150小兩을 보내주었다⁵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留學僧들은 일본에서 金(砂金), 純, 綿, 布 등을 가지고 가서 당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것은 金이었다. 承和 5년(838) 제17차 견당사가 입당했을 때, 揚州의 시장에서 砂金 大1兩이 7錢에 해당한다는 교환율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유학승

42)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 6년 2월 27일조.
 43)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2년 10월 13일조.
 44) 『續日本後紀』 承和 11년 7월 2일조.
 45)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6년 正月 9일조; 2월 9일조; 4월 27일조; 5월 1일조; 10월 2일조.
 46) 『續日本後紀』 嘉祥 元年 6월 5일조.
 47) 『平安遺文』 9-4548; 『三代實錄』 元慶 4년 10월 19일조.
 48) 『平安遺文』 9-4541; 9-4542.
 49) 『平安遺文』 9-4548.
 50) 『日本紀略』 寬平 6년 7월 22조; 『管家文草』 권10.

들에게 그 주요한 경비로 金이 하사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그런데 隋·唐代의 무게 단위인 大1兩은 10錢에 해당하고 1兩의 1/100에 해당하는 것이 1分이다. 또 1貫은 1,000文에 해당하는 화폐단위였으므로 金 7錢은 70分, 9貫 400文은 9,400文이므로 金 1分은 134.3文의 화폐가치를 지닌다⁵²⁾.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⁵³⁾ 840년대 중국 산둥반도 지방의 지역별 곡식 값은 대체로 米 1斗에 60文, 粟 1斗에 30~50文, 粳米 1斗에 70~100文 등이었다⁵⁴⁾.

엔닌은 당에서 新譯經과 念誦法 등을 寫經하는데 金 25兩의 공가를 지불하였고 『維摩關中錄疏』 4권을 450文에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⁵⁵⁾ 당시 중국에서 金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金이 일본 유학승들의 경비 충당에 얼마나 유효한 것이었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金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836년까지 陸奥國 白河郡의 砂金채굴량도 749년의 산출량과 비교해 倍增하였으며⁵⁶⁾, 그것이 이후 견당사파견의 비용에 충당되거나 현지 활동비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다⁵⁷⁾. 예를 들어 최후의 견당사의 일원이었던 藤原貞敏은 揚州에서 廉承武라는 피리의 명인에게 金 200兩을 주고 피리 부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⁵⁸⁾.

51)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 5년 10월 14일조 十四日 砂金大二兩 於市頭令交易 市頭秤定一大兩七錢 七錢准當大二分半 價九貫四百文 更買白絹二疋價二貫 ...
 52) 박남수, 「신라 중·하대 장인의 생활」, 『강좌 한국고대사 6』, 2002, pp.144~146.
 53)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 3·4월조.
 54)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2, 鈴木學術財團, 1966, pp.253~254; 권덕영, 「제당신라인사회와 직산법화원」, 『사학연구』 62, 2001, pp.69~70 등 참조.
 55)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 5년 11월 2일조.
 56) 『延喜式』 권23 民部 交易雜物.
 57) 田中史生, 「入唐僧(生)をめぐる諸問題-平安時代を中心として-」, 『史學研究集録』 18, 1993.
 58) 『三代實錄』 貞觀 9년 10월 己巳條 勅 令大宰府 庫物之代砂金六百三十二兩·水銀百七十五斤 注附官帳 先是府司申請 每唐人來 募貨物直 借用庫物 交關畢後 以砂金准官給綿 惣計返納其砂金一兩充綿十六屯 絹一疋充綿十四屯 府司不能勘却 行來尙矣 今當交代之日 新司論曰 物非其實 相違官帳 仍不受領 而太政官去年八月十四日符 只免唐人崔鑠之時返上砂金三百六十一兩 望請 準據彼例 被許注帳 從之.

다음은 당 중기 이후 일본의 국제 교역품에 대한 물품구입의 지불수단이 綿에서 金으로 변모(59)되고 있음을 大宰府를 통해 확인해 보자.

大宰府는 늦어도 9세기 후반 경에는 중국 상인들과의 국제교역을 위해 金을 비축해 두고 있었던 것 같다. 『三代實錄』 元慶 元年(877) 12월 8일조에 의하면(60) 大宰府의 ‘資材·蕃客·遣唐使留置·返上’의 「四箇帳」에 기록되어 있는 ‘貢綿 1,152屯이 창고에 쌓인 채 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沙金 572兩으로 바꾸어 비축하고자 하는 大宰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三代實錄』 元慶 3년(879) 10월 13일조에 의하면(61) 大宰府에서 唐人이 항해해 오면 구입하는 ‘貨物’의 대가로서 창고에 비축해 두고 있던 砂金, 水銀, 錫, 綿, 絹 등을 借用하여 교역을 행하고, 교역 후에 반납할 때는 砂金을 官給의 綿에 준해 반납하며, 그 때 砂金 1兩 = 綿 16屯, 絹 1疋 = 綿 14屯으로 환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府司가 반납할 수 없어 元慶 3년의 시점에 大宰府 창고에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砂金 633兩과 水銀 175斤의 반납을 면제하여, 실제와 장부상의 차를 없게 했다. 이것은 元慶 2년(878) 8월 14일 官符에 唐人 崔鐸과의 교역 때에 생겼던 ‘返上砂金’ 361兩을 면제해주었던 예에 준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元慶 연간의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일본은 국제교역을 할 때에 재원의 일부였던 綿이 ‘沙金’으로 교체되었으며, 大宰府에 ‘砂金’을 반납하여 이를 비축하는 등 점차 교역의 대가가 綿에서 金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4. 日本에서 唐으로 金의 流入

	연도		출전
1	776	砂金	續日本紀
2	796	沙金	日本紀略
3	804	金	顯戒論緣起
4	822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5	826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6	836	砂金	續日本後紀
7	838	砂金	三代實錄
8	839	沙金, 金	入唐求法巡禮行記
9	841	砂金	入唐求法巡禮行記
10	844	黃金	續日本後紀
11	846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12	848	黃金	續日本後紀
13	852	黃金	長谷寺靈驗記
14	877	黃金	三代實錄
15	878	砂金	三代實錄
16	882	砂金	平安遺文 9-4541
17	890	沙金	日本紀略, 平安遺文 9-4548
18	894	砂金	日本紀略
19	909	沙金	日本紀略
20	926	黃金	日本紀略
21	938	砂金	貞信公記抄
22	947	砂金	帝王編年記
23	953	金	平安遺文 9-4623
24	982	砂金	小右記

日本과 渤海 사이에도 金이 교류되고 있다. 『續日本紀』 777년 5월 癸酉條에

59) 田島公, 앞의 논문; 吉川眞司, 『國際交易と古代日本』, 2006·2007 장보고연구회 한일공동연구 연구결과보고.

60) 『三代實錄』 元慶 元年 12월 8일조 先是 大宰府者言 資財·蕃客·遣唐使留置·返上等四箇帳貢綿一千一百五十二屯 徒積庫底 將致腐損 請相博沙金五百七十二兩 以爲永貯 至是許之.

61) 『三代實錄』 元慶 3년 10월 己巳條 勅 令大宰府 庫物之代砂金六百三十二兩水銀百七十五斤 注附官帳 先是 府司申請 每唐人來 募貨物直 借用庫物 交關畢後 以砂金準官給綿 忽計返納 其砂金一兩充綿十六屯 絹一匹充綿十四屯 府司不能勘却 行來尙矣 今當交代之日 新司論曰 物非其實 相違官帳 仍不受領 而太政官去年八月十四日符 只免唐人崔鐸之時 返上砂金三百六十一兩 望請 準據彼例 被許注帳 從之.

는 渤海使 使都蒙의 요구에 응해 黃金 小100兩을 사여한 이래 발해와의 대외교류에도 金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표5. 日本 金의 渤海 流入

	연도		출전
1	777	黃金, 水銀	續日本紀
2	796	沙金	日本紀略
3	822	黃金	類聚國史
4	825	黃金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後紀
5	826	黃金	類聚國史, 日本紀略

4. 金銀과 東亞細亞交易의 變化

東亞細亞에 있어서 金銀이 유통되거나, 교역대가로서의 지불수단으로 점차 金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東亞細亞交易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물론 8세기 단계에서 신라와 일본 간의 교류에는 여전히 綿이 주로 사용되고(62), 841년 11월 文室宮田麻呂가 장보고로부터 '唐國貨物'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선금으로 絁라고 하는 綿과 같은 섬유원료를 지불하였으(63), 869년 신라의 해적이 豊前國의 貢調船을 습격하여 絹綿을 약탈하는(64) 등의 예로부터 신라와 일본 간의 교역에는 주로 면이 사용되었고, 당 중기 이후 두드러지는

62) 岡藤良敬「大宰府財政と管内諸國」, 『新版 古代の日本』 3, 角川書店, 1991, pp.308~309.
 63) 『續日本後紀』 承和 9년(842) 正月 10일조 乙巳條 ... 是日 前筑前國守文室朝臣宮田麻呂 取李忠等所齎雜物 其詞云 寶高存日 爲買唐國貨物 以絁付贈 可報獲物 其數不尠 正今寶高死 不由得物實 因取寶高使所齎物者 ...
 64) 『三代實錄』 貞觀 11년(869) 6월 15일 辛丑 ... 大宰府言 去月二十二日夜 新羅海賊 乘艦二隻 來博多津 掠奪豊前國年功絹綿 即時逃竄 發兵追遂不獲賊.

唐商과 일본 간의 교역에서부터 金銀이 활발히 사용되었다(65)는 것이 이제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이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에서는 金銀을 이용한 器用의 제작이 금지령이 반포될 정도로 이미 金銀의 사용이 성행했던 9세기 초반에 日本使를 통해 金이 진상되고 있었고, 이미 8세기 이후부터 筑前國 을 중심으로 일본의 서남지역과 신라 간에는 銀을 통한 교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9~10세기에 이르면 신라와 일본 간에는 綿 뿐만 아니라 金銀도 주요한 교역품 내지는 교역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金銀의 유통이 東亞細亞의 교역에 가져온 변화는 비교적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일본의 교역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849년 唐商人이 단독으로 일본에 항해해 온(66) 이후, 862년에는 唐商의 鴻臚館에의 안치가 허가되었다. 이후 唐商과 일본과의 교역은 빈번히 이루어졌으며(67), 그간 신라상인이 주도해 오던 東亞細亞의 해상교역은 9세기 후반 이후에는 唐商人(재당신라인도 포함)의 주도로 변모해 간다. 여기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그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에는 일본 내에 팽배해 있던 신라에 대한 排外意識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68)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상인에 의한 東亞細亞 해상교역의 발전은 신라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西海道の 지방관이나 지방 호족들의 私的 交易을 발전시켰고(69), 이것은 일본 조정의 대외교역의 독점(외국상품의 독점)을 곤란하게 했다. 이러한 사정이 일본 조정으로 하여금 신라상인과의 교역을 경계하고, 唐商人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官司先買의 大宰府 교역으로 변경하는 계기를 마련했

65) 皆川雅樹, 앞의 논문, pp.27~30.
 66) 『續日本後紀』 嘉祥 2년(849) 8월 4일조.
 67) 松原弘宣, 앞의 논문, 1999.
 68) 이병로, 앞의 논문.
 69) 이병로, 「장보고와 훈야노미야다마로와의 교역에 관한 연구」, 『대외문화교류연구』 4, 2006.

을 것이다.

官司先買를 통한 교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교역품의 교환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官司先買에 앞서 멋대로 교역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조정은 상인의 鴻臚館 이용 = 安置供給의 제도를 마련하고, 명확한 교환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것이 바로 金이었던 것은 아닐까? 교환의 편리성이나 財貨的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희소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估價(沽價)를 설정하는데 가장 알맞은 것은 역시 金銀 등의 財貨였을 것이다.

또한 商人의 입장에서 金銀의 확보는 상품 대금이외에도 이를 매개로 교역 주체(王權이나 中央勸力)와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 唐商과의 교역을 관장하였던 交易唐物使는 天皇의 측근인 藏人所로부터 파견되었다. 이 藏人所가 平安時代 중기 이후 金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⁷⁰⁾ 고려할 때 金을 매개로 한 양자의 관계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大宰府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다⁷¹⁾.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海商이 대재부에 도착하면 唐物使가 대재부에 파견되어 商客이 가지고 온 貨物을 검사·선별하여 物貨目錄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한다. 조정은 필요한 물자를 進上시키고(이상의 과정이 檢頒),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대재부에서의 '和市'라 불리는 가격교섭에 의해 자유매매를 허가한다. 이후 京으로부터 '返金使'⁷²⁾가 와서 교역대가로서의 金을 지불하여 국제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교역질서의 유지, 그러나 실제로는 궁정수요의 확보를 위한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며 金이라는 교환기준(지불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 金銀 天皇에 의해 독점적으로 확보되었고, 天皇이외의 귀

70) 小葉田淳, 「陸奥の金」, 『日本鑛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71) 『新儀式』 제5 大唐商客寺 大宰府言上商客着岸之由 爲令檢頒貨并行和布(市事) 差藏人一人·出納一人下遣 使等檢頒唐物參上 厥後更遣出納一人 令辨賜直 令太政官奏: 松原弘宣, 앞의 논문 참조.
 72) 返金使 역시 天皇의 측근으로 藏人所로부터 파견되었다. 이는 결국 天皇이 金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족들도 교역에 참여하였지만 天皇과 같이 막대한 양의 金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귀족들은 絹, 綿 등 대체지불수단을 이용하였던 것이다⁷³⁾.

遣唐使를 통한 일본과 당 사이의 공식 교류는 실질적으로 承和 5년(838)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일본은 소규모의 '入唐使'를 당의 商船에 편승시켜 香料나 藥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貞觀 16년(874)에 파견된 '入唐使'의 일원이었던 大神御井은 당시 參議였던 藤原山陰으로부터 하나의 부탁을 받고 당으로 출발하였다. 藤原山陰은 千手觀音を 조상하기 위한 白檀을 당에서 사왔으면 한다는 부탁과 함께 그 비용으로 다량의 黃金을 전하고 있다. 3년 후인 元慶 원년(877) 8월 入唐使는 귀국하였고 이때 大神御井도 藤原山陰에게 부탁받은 白檀을 사가지고 귀국하였다. 이에 藤原山陰은 천수관음을 조상하여 이를 攝津國 島下郡에 總持寺를 세워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延喜 11년(912)에 완성된 總持寺의 鐘銘에 창건기록으로 남아 있다.⁷⁴⁾

이러한 예를 통해 보면 9세기 말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시기 東亞細亞의 국제교역은 海商이 일본에 들어가 교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唐의 商船에 편승해 중국에 들어가 교역하는 경우에도 金을 통한 대가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東亞細亞의 국제교역에 있어 金이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 『小右紀』 天元 5년(982) 3월 26일조에 의하면, 唐人이 항해해 온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奥州에서 金이 獻上되지 않았기 때문에 '答金'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일본 조정은 상품의 대가로 金을 지불해야만 했고, 당시 중국인들에게도 金이라는 것은 3년이나 기다릴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3) 주 60) 참조: 足立道久 앞의 책 참조.
 74) 『朝野群載』 권1.

5. 맺음말

이상 唐 後期 東亞細亞 각국에서 金銀의 이동과 그것이 東亞細亞 교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료 상의 제약으로 일본 중심의 검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일본의 교역 시스템 형성은 新羅·唐 등 東亞細亞 주변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것이므로, 당시 東亞細亞 교역변화의 일단은 확인할 수 있었다.

8세기까지 東亞細亞交易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絹이나 綿 등의 직물류는 唐 中期이후 金銀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교역품(조공품)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교역의 대가 역시 점차 金銀으로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직물류는 주요한 교역대가의 지불수단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귀족이나 지방 호족 등의 교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국가의 최고 권력인 신라의 王이나 일본의 天皇이 金銀을 독점하면서 교역형태를 유지해 갔다.

최고의 국가 권력이 金銀을 독점하게 되면서 金銀을 중시하는 교역형태로 흘러갔고, 동시에 그러한 교역의 결과는 국가 최고 권력이 金銀을 더욱더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일본에서 大宰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시스템이다.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는 東亞細亞 교역시스템이 형성된 배경에는 9세기 중반까지 東亞細亞 해상에서 국제교역을 주도하던 장보고를 비롯한 尙當新羅상인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지방 세력이 교역을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 신라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西海道の 지방관이나 지방 호족들의 私貿易을 발전시켰다.

私貿易의 발전은 그동안 일본 조정이 대외교역을 독점(외국상품의 독점)하

며 지배층으로서의 권한을 강화·유지시키고 있던 것을 곤란하게 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조정은 신라상인과의 교역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장보고의 죽음을 계기로 尙當新羅상인들이 주도하던 東亞細亞交易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唐商人(尙當新羅인 포함)이 東亞細亞交易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唐商人의 국제교역활동과 金銀을 통한 교역의 증대가 맞물리면서 일본은 官司先買라고 하는 大宰府 중심의 교역시스템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고만으로 당 후기에 있어서 金銀이 東亞細亞交易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교역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모두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東亞細亞에서 金銀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신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의 東亞細亞의 교역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唐 내부에 있어서 金銀의 유통문제⁷⁵⁾, 그리고 東亞細亞諸國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東南亞細亞諸國과 亞細亞의 기타 異民族과의 교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金銀의 문제⁷⁶⁾와 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유목민족과의 金銀流通 등을 아울러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당 후기 중국 내부에서의 金銀의 유통과 은품귀현상 등에 대해서는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加藤繁, 《唐宋時代に於ける金銀の研究》, 東洋文庫, 1926.
 小葉田淳, 《金銀貿易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6.
 李成市,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正倉院寶物が來たもうひとつの道》, 青木書店, 1997.
 保立道久, 《黄金國家-東アジアと平安日本-》, 青木書店, 2004.

75) 日野開三郎, 앞의 논문,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5, 1984; 9세기 후반 당 내부에서 金銀의 화폐유통과 당시 대외교류에 있어서 金銀교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를 중비 중이다.
 76) 加藤繁, 앞의 책.

김문경, <장보고시대의 해상활동과 교역>《한중문화교류와 남방항로》, 국학자료원, 1997.

이병로,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일본학지》 16, 1996.

요시카와신지(吉川眞司), <국제교역과 고대일본>,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제상》,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8.

小葉田淳, <陸奥の金>, 《日本鑛山史の研究》, 岩波書店, 1968.

三克己, <日宋貿易と奥州の砂金>, 《續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日野開三郎, <唐代嶺南における金銀の流通>,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5, 1984.

松原弘宣, <陳泰信の書狀と唐物交易使の成立>, 《續日本紀研究》 317, 1998.

松原弘宣, <九世紀代における對外交渉とその流通>, 《愛媛大學法政學部論集》 人文科學編 6, 1999.

渡辺誠, <承和貞觀期の貿易政策と大宰府>, 《ヒストリア》 184, 2003.

渡辺誠, <平安期の貿易決濟をめぐる陸奥と大宰府>, 《九州史學》 140, 2005.

皆川雅樹, <9~10世紀における日本の金と對外關係-大宰府鴻臚館を中心として->, 《古代交通研究》 11, 2002.

田中史生, <筑前國の銀の流通と國際交易-銀流通の前提を再考する->, 《古代の銀と銀錢をめぐる史的檢討》, 2004.

< Abstract >

Until the 8th century, such textile as silk or cotton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ast Asian trades. However, as gold and silver trades had been facilitated after the mid 9th century, gold and silver were used to pay for traded goods (tribute). Although textile was still used to pay for transactions, it occurred to trades by aristocrats in the capital area and regions most of the time, and as the King of Silla or the Emperor of Japan monopolized the gold and silver, they emerged as important items. As the highest power of a state monopolized the gold and silver, they were cherished in the process of trading, and it contributed to creating a system where the highest power of a nation

could further monopolize the gold and silver.

It resulted in a trading system centering Dazaifu in Japan.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an East Asian trading system led Silla merchants residing in Tang such as Jang Bo-go who took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trades in the sea of East Asia until the mid 19th century to stimulate local powers enabling them to have the upper hand in trading. It contributed to developing private trades by local officials and aristocrats in the west sea areas in Japan. The development of private trades made it difficult for the Japanese Royal Court to monopolize overseas trade (foreign goods) in an effort to enhance and maintain its power, and the Japanese Royal Court who felt threatened was beware of trades with Silla merchants. Under these circumstance, Jang Bo-go's death hit hard the East Asian trade that had been led by Silla merchants residing in Tang, and Tang merchants (including Silla merchants residing in Tang) emerged as a main player in the East Asian trades. As gold-and-silver-based trades increased, Japan created Dazaifu trading system.

Key Word: in the Late T'ang China, East Asia, the International Trade, Gold & Silve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27	2010.1.30	2010.2.3	2010.2.8	2010.2.28